

#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1만110명 선발

## 도교육청,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 확정공고... 전주 등 3시 모집정원 전년대비 277명 줄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시) 일반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1만110명으로 확정되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하여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입학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교 6,690명, 군산 6교 1,620명, 익산 7교 1,800명 등 총 36교에서 1만110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모집정원(36교 1만387명)보다 277명이 줄어든 것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당 정원을 전주시 30명, 군산시 30명, 익산시 30명으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감소를 고려한 고교 학생배치 적정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평준화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고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응시 원서는 12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흘간 출신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재학 또는 출신 중학교에서 나이스(NIS)로 작성한 원서를 전북 고입전형 포털(<http://sap.j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방법, 원서작성, 학교 배정



**한옥마을 꽃거리 조성** 전주시는 7일 한옥마을 은행로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옥마을 주민들 조문규 어진포럼회장, 윤기정 전주화훼인업협회장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옥마을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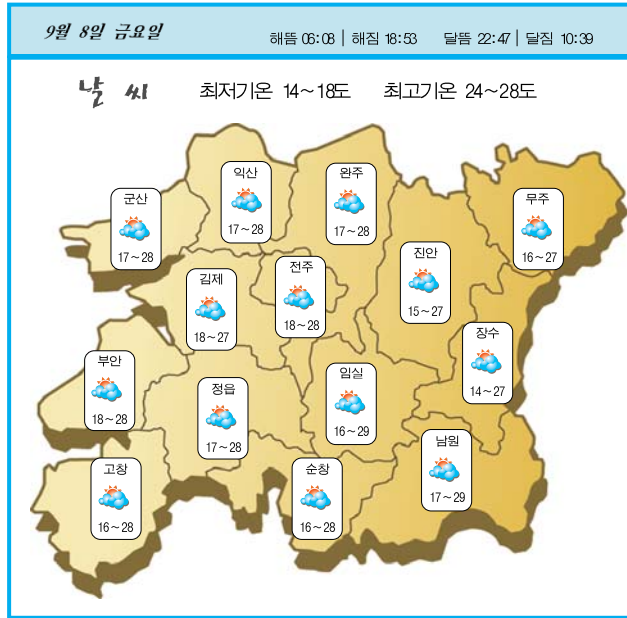
방식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원자는 해당학군의 모든 학교를 희망 순위에 따라 원서를 작성한다.

특히 전주시 학군 지원자는 배정권역인 '일반권역'과 '혁신도시권역'을 먼저 선택하는데 혁신도시 권역을 선택할 경우 1지망 학교는 자동으로 양현교가 되며, 2~5지망은 나머지 회

망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일반권역'을 선택할 경우는 양현교를 제외하고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선택해야 한다. 3시 평준화 일반고의 학생선발은 내신성적(교과 80%+비교과 20%)에 의한 학교별 석차백분율의 상위 성적순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에 발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배정은 성적 고려 없이 원서 작성시 선택한 지망 순위 순위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하여 내년 1월 19일에 발표하는데 한번 배정 발표된 학교는 어떠한 경우도 바뀌지 않기에 원서 작성에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 마한교육문화회관, 다채로운 행사 운영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책과 영화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익산 속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된 가을 밤, 익산의 향기 초청강연이 13일 그리고 20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익산 출신의 소설가 백가흠과 평론가 신귀백을 초청하여 익산의 문화 향기에 취할 수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직접 사인한 도서 증정과 더불어 29일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초청 공연의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에는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을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는 영화감독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공연이 마련된다. 소박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장 감독과의 만남은 영화평론가 전찬일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 너머의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

질 예정이다. 또 특별히 초청한 퓨전음악가 신은주의 음악공연도 같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달에는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풍성한 독서관련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림책 원화 전시(장수탕 선녀님/백희나), '캘리 감성 체험'(28일), '이토록 아름다운 독서', '책길 따라 도서관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독서의 장을 마련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독서라는 것이 듣고, 보고, 직접 써보고, 저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닌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마한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나 유선(063-840-723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11일부터 2018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 학생부종합전형 786명 · 교과전형 1818명 등 2604명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11일부터 15일까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받는다.

전북대는 이번 수시모집을 통해 모두 2,604명(64.0%)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 786명(19.3%), 학생부교과전형 1,818명(44.7%) 등이다.

원서접수는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웨이아플라이([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에 이어 2단계 평가(면접 및 1단계 성적 반영)를 거쳐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초 합격

자가 12월 15일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 수시모집의 주요 특징으로는 그동안 정시와 학생부교과전형으로만 선발했던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인 '큰사람 전형'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의예과 3명, 치의예과 2명, 간호학과 5명, 수의예과 2명을 '큰사람 전형'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고교 재학기간의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전 분야가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1단계 평가기준에 반영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역인재전형'으로는 간호학과 10명, 수의예과 5명, 의예과 39명, 치의예과 12명을 각각 선

발한다

이밖에 문학·수학·영어·과학·소프트웨어 혹은 모집단위 관련분야에 창의적 재능이 있거나 진취적이고 모험적 활동이 있는 학생들 중 모집·창의인재전형으로 81명을 선발하는 등 모집단위 관련 언어적 소질이 있거나 글로벌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인재전형으로 27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의 큰사람전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는 최저학력기준을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북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해 오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입학사정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 군산대 해양생명과학과 양어사로 인력 양성 트랙 운영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는 양어사로 인력 양성 트랙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및 기업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양어사로 인력양성 트랙은 교육부가 취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군산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2학기부터 양어사로 산업에 적합한 창의실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대규모 사료공장이 밀집돼 있어 양어사료의 수요가 높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와 LINC+사업단은 이러한 양어사료분야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과격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우수한 실험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양어사료 인력양성 트랙이 사회맞춤형 학과의 롤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도교육청, 대학 입시 앞두고 학원 특별 점검

전북도교육청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원 점검은 입사면담 및 불법

운영과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입과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액 특별교습,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정해은 기자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돕는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길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